

충장축제와 함께 ‘세계축제도시’로 거듭난 광주 동구

자치CEO

임택

광주 동구청장



매년 10월 충장축제 기간이면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축제장 곳곳을 누볐다.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개막한 10월 2일부터 폐막하는 6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와 충장로, 5·18민주광장,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정검다리 연휴에 소나기로 궂은 날씨였지만 유모차를 끌고 나오거나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 친구들과 물려온 학생들, 다정한 연인·친구들의 모습까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금남로와 충장로 등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일원은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러 온 젊은 청춘들, 그리고 옛 추억에 잠긴 이들로 가득했다.

모름지기 ‘대동(大同) 축제’라 하면 축제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주인이 되는, 다시 말해 특정인으로부터 좌우되는 일회성 대형 이벤트가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 충장축제 역시 ‘대동’을 콘셉트로 하루에 한 번은 큰 이벤트를 선사하는 ‘1 Day, 1 Big event’를 통해 시민이 주

인이 되는 축제의 정신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추억 감성 콘서트’, 도로 위가 도화지가 되는 ‘길 위에 스케치북’, 청년기획단 짚이가 운영하는 ‘추억놀이터 짚이학교’, 프로 복서와의 스파링과 말싸움 등 재미를 더한 ‘복싱장 배틀’, 2000여 명이 장구로 하나 되는 ‘아랑고고장구 플래시몹’ 등은 오감(五感)을 사로잡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시민 기획 5종 프로그램은 ‘시민 주도형 축제’가 되는 의미 있는 도전이기도 했다. ‘충장 의상실’,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충장 레트로 체험 여행’, ‘충장축제 Build up! 추억의 路 모데부러’, ‘아트 스트리트’, ‘충장축제와 함께하는 금남지하도상가 대축제’ 등이 바로 그것.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소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기는 게 바로 축제장의 매력 아니겠는가. 각 공간의 개성을 살려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시민들이 조선대 충예기획단과 협업·운영했는데 1년 중 이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즐길 수 있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기성세대들에겐 추억을 되새기고, MZ세대들에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늘 주요 축제장과 거리가 멀었던 추억의 테마 거리도 메인무대 옆으로 옮겨 동선은 줄이고, 시·청·축·후·미 각 등 오감을 테마로 하는 합한 공간으로 꾸며 전 연령대가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

했던 건 단연 축제의 꽃인 ‘파이어아트 퍼레이드’였다. 움직이는 뮤지컬이라 할 정도로 13개 행정동 주민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상징 모뉴먼트를 대형 수레에 올려 의상과 분장, 음악, 특수효과까지 완벽함을 더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火)’을 테마로 하는 화려한 불꽃 퍼포먼스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축제 기간 내내 볼 수 있었던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로맨스 파이어’는 물론 금남로 전역에서 펼쳐지는 한국·태국·대만 등 국내외 파이어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파이어 버스킹’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됐다.

그토록 뜨겁던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과 함께 21회 충장축제도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최근에는 20년간 쌓아온 충장축제의 결실들이 인정받았다.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광주 동구가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됐고, 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피나클 어워드에서도 퍼레이드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이제 성년을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 중인 올해 충장축제가 남긴 ‘추억은 멈추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켜켜이 쌓여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번 충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세계축제도시’로 거듭난 인문도시 광주 동구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충장축제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독자투고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이나 주말처럼 가정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지난해 2월23일 심야, 우리 지역 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주자는 잠을 자던 중,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재빨리 깨어났습니다. 그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하게 대피한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며, 다행히도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용 소방시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얼마나 중

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감지기가 없었다면 화재를 늦게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 효과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박영나** <영암소방 예방안전과 소방경>

기고

김천문 전남도선관위 선거과

곡성·영광군수재선거에서도 운영되는 사전투표제도



다가오는 10월16일, 곡성·영광군수재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각 야당 당대표가 총출동할 정도로 판이 커져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도 사전투표제도가 운영되어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신청 없이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각 지역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 사전투표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통신망을 구성하므로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전투표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통신망으로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유지하며,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해킹을 차단하고 있어 안전하다.

같은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전산상의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 시 명부 단말기(노트북PC)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므로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절대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투표시작부터 마감, 투표지 이송 및 접수, 투표함 보관, 개표장까지의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한다.

또한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관위 통합 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정당추천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한다.

선거인은 해당 시·군위원회의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신청 후 열람용 모니터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다.

한편, 시·도위원회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CCTV 영상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수송할 때에는 정당·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한다. 개표참관인의 참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곡성·영광군수재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11일부터 12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곡성·영광군 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선거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유권자 모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믿고 안심하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기원해 본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